

불심시심 (1)

두끝을 버려라

茫茫堪與絕中邊 茫茫한 천지 공간 끝 어디 있나  
 幅裂豆分豈怨天 찢어 놓고 갈라 놓고 하늘을 원망해  
 透網錦鱗瀟瀟水 그물 빠져나간 고기 다시 물에 막히고  
 鵬搏萬里一搖肩 만리를 나는 봉새도 어깨 한 번 처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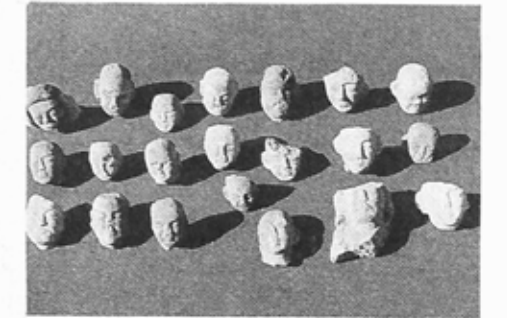
이 계승은 조선조 인오선사의 시이다. 인오선사의 호는 청매이다. 시의 내용은 4조가 3조에 "해탈의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하니, 3조가 "너를 결박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 하니 곧 깨달았다는 내용을 읊은 시이다.

망망한 천지에서 어디가 중앙이고 어디가 끝이라 할 수 없는데, 우리는 하늘이나 땅이나 그 중간이 새간이나 하여 스스로 얽매는 것이다. 시선이 끝나는 어느 지점을 놓고 그것이 끝이라 하면, 시선을 옮겼을 때는 또 어찌해야 되는가. 마치 한쪽의 천을 잘라 놓고 중앙이나 양편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평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평인데,

물고기가 그물을 빠져나갔다. 해서 그 고기가 자유를 얻은 것인가. 물이 다시 물고기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면 이 고기는 역시 얽매어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물에 있을 때는 자유롭다고 느끼는 것은 물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잊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물에 갇혀 있더라도 그물이라는 이를질을 느끼지 않으면 그들은 없는 것

**이 증 찬**  
 △동국대국문과 졸업 △한양대문학박사 △『조선고승한시선』 『한국불교사문학사론』 등 다수 △수상집 『법음의 여유』 등 △현, 동국대 문과대학장



◇ 불회사 인근에서 발견된 고려대 석조 나한상들.

**석재나한상 무더기 발굴**  
 광주박물관, 불회사 부근서

전남 나주군 다도면 마산리 불회사 250여미터 부근에서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기에 걸쳐 제작된 석재나한상(石造羅漢像) 수백여점이 집중 출토되어 고고학계를 비롯, 교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발굴은 현지인의 제보로 국립광주박물관(관장·이건우)에 의해 9월7일부터 26일까지 문화재관리국의 긴급발굴 예산지원과 나주군의 협조로 실시되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석재나한상편들이 한 장소에서 대량으로 출토된 점과 그 양으로 보아 오백나한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비록 완형(完形)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회화나 기록으로만 전해오던 고려시대의 석조나한상이 이처럼 대량으로 출토된 예는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오백나한상 가능성이 높아 고려 및 조선전기 나한상의 도상(圖象)적 특징과 양식을 규명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성보 문화재 "있던 자리로"**

**국립중앙 박물관 외부 불교유물 철거 대책없어**  
**국보등 12점, 원위치 반환후 철거 관리 마땅**

국립중앙박물관의 이전과 관련된 박물관 외부에 전시된 불교유물들은 어디로 옮겨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계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내년 8월 15일까지 철거할 방침이나, 박물관측은 아직 철거의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박물관 철거작업은 늦어도 내년 5월 이전엔 시작될 것인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 국립중앙박물관 철거와 관련 의견의 성보유물을 불교계로 돌려줘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와관련, 박물관 외부에 전시된 불교유물들의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이 교계의 주장이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은 동쪽 광장 지하 15M에 8인여점의 유물이 보관된 수장고가 있고, 지상에서 사방 1백M 이내에 관화문, 보제존자 사리탑(보물358호), 남계원 7층석탑(국보100호), 경천사지석탑, 안흥사 5층석탑 등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12점의 귀중한 성보문화재로 둘러싸여 있다.

이와는 달리, 국가차원에서 박물관이 관리해 오던 유물들을 새로 신축되는 용산시민공원 박물관에 그대로 옮겨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같은 의견은 폐사지로 원상복귀시킬 경우에 대두되는 관리·보존의 문제점이 철저히 감구되지 않는 한 성보에 대한 훼손과 유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여론에 대한 교계의 반발도 큰 것이 사실이다. 성보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경우에도 문화재관리국을 담당기관이 문화재로서의 관리하는 여건이 치밀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인근의 사찰이나 주변 신원단체들이 이들 성보문화재를 관리해오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여론에 대한 교단의 준비는 진부한 상태다. 또 불교문화재·유물들을 집중으로 탐구하고 있는 학자들은 일단 정부측의 입장을 기다리는 자세이지만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란 것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측은 "무소유·무진동·무분진"의 3대 원칙을 제시, 전시유물에 한치의 훼손없이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임시박물관으로 쓰여질 조선왕궁에서 박물관이 건립되고 있는 현재에도 주위에 있는 법천사 지공국사 현묘암, 전 흥법사영거 화상부도, 보리사 대경대사탑비 등에 아무런 보호장치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훼손의 우려와 아쉬움을 사고 있다. (도필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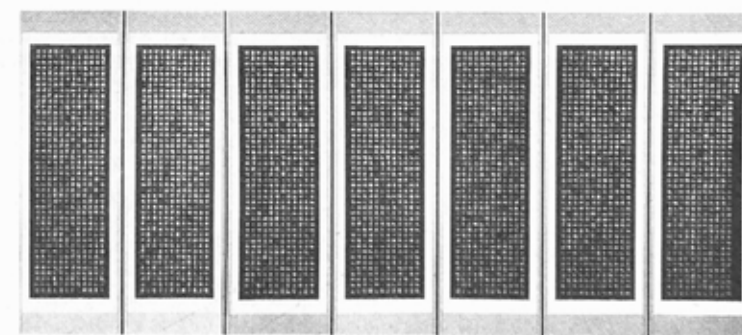
**이용현 작 「금니금강경」 대상차지**  
**제15회 불미전 입상자 발표, 금상에 한기능, 전연호씨**

제15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총정수)에 이용현씨(58, 전북 전주시 단산동)가 선정됐다. 작품은 「금니금강경」. 10폭 병풍으로 제작된 서예작으로 감자에 금분으로 금강경 경문을 썼다.

불교미술대전 대상에 서예작품이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 사회부는 지난 15일 제15회 불미전 입상자를 발표, 이번 불미전에서는 대상 1점, 금상(총무위원장 상) 2점, 은상(우수상) 6점, 동상(장려상) 8점, 특선 12점, 입선 79점 등 총 108점의 작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조각·전통회화 등 7개분야에 총 2백50여점이 출품된 이번 불미전에서 금상은 한기능씨의



◇ 이용현씨의 「금니금강경」 10폭 병풍의 일부.

조각 「도구1」, 「도구2」와 전연호씨의 전통회화 「삼장보살도」가 차지했다.

심사에는 홍은식(동국대)교수, 황수영(문화재위원)박사, 정영호(고려대 박물관장)박사,

진홍섭(문화재위원)씨, 정주상(국전심사위원)씨, 오경환(동국대)교수와 석정수(인간문화재·불화), 관조스님(사진작가) 등이 참가했다.

홍은식교수는 심사평을 통해

"이번 불미전은 불교미술의 분야를 확대해 불교미술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일깨워 준 반면 불상과 불화부분에 대해서는 창작의 발전을 위한 경각심을

주었다"고 평했다.

한편 이번 입상전에 오른 1백8점의 작품은 24일부터 30일까지 조계사 문화교육관과 불교회관 1층에서 전시된다.



◇ 김희자씨의 「달위에 숨은 남의...」

**사유세계의 「실체」 탐구**  
**김희자 초대전, 독특한 화법 눈길**

그리고 끝없는 사유세계의 탐구와식 표현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기존의 템버스 틀을 거부한 작품들은 내용의 전달을 돕고 있으며 형식을 위주로 한 색감의 선명성 속에 은근히 내비치는 명상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는이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김희자씨는 성신여대와 서울대에서 권회와 회화를 전공하고 뉴욕에서 세련의 초대전을 가졌다. 서울 전시는 이번이 네번째로 11월 3일까지 계속된다.

**피카소, 사갈의 진품 공개**  
**연화사 건립금 마련 「명품전」**

영국 연화사 건립금 마련을 위한 「명품명품전」이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의 일정으로 삼성동 종로코퍼레이션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명품명품전에는 19세기 빅토리아 왕조의 본카이나를 2백여점의 자기가 선보이고 있다. 특히 영국대사(THOMAS HARRIS)가 내놓은 피카소의 자기류, 사갈의 권회화 진품들은 미술 애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 연화사 건립을 추진중인 보른스님은 "이번 전시가 성공리에 끝나 영국에 한국 사찰을 건립할 수 있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에는 현재 태극·일본의 불교가 많이 소개되고 있으나 한국불교의 포교활동은 미진한 상태이다.

**동국불교미술인회창립전**  
 내달 2일부터, 26명 출품

동국불교미술인회(회장·김익홍) 창립전이 다음달 2일부터 8일까지 인사동 국민갤러리(723-7771)에서 열린다.

이번 창립전에는 26명의 회원이 불교회화·조각·공예 등 신작을 내놓는다. 동국불교미술인회는 동국대학교 인연 있는 미술인들이 지난 5월에 결성한 모임으로 현재 3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訃 告**

佛敎음악 작곡가이며 사찰합창단 지휘자이신 이길상선생께서 佛紀 2538年 (陰9月13日) 10月17日 오전 12시 40분 世緣을 다하여 이대부속병원에서 世壽 55歲로 입적하시어 다음과 같이 영결식을 봉행코자 알려드립니다.

佛紀 2538年 10月17日

■ 영결일시: 불기 2538년 10월21일(金) 오후1시

■ 영결장소: 강남 봉은사(547-4255~6)

■ 연락처: 992-8439, 900-4929

증 명: 탄성(조계종 총무원장)  
 고 문: 전대운(경국사 주지), 차동광(도선사 주지), 신무상(봉은사 주지)

장의위원장: 최영철(작곡가)  
 부 위원 장: 운문스님, 최조웅교수, 정부기교수, 변규백, 박재완, 정순자

총 무: 이규호(진각종 합창단 지휘자)  
 부 총 무: 유동열(관음사 합창단 지휘자)  
 재 무: 구윤희(성보사 포교원 원장)  
 총 보: 김묘주(연꽃합창단 단장)

장의 위 원: 정덕스님, 묘심스님, 정진스님, 지안스님, 이무영, 안병길, 김희경, 박이재, 서운재, 안순진, 정옥녀, 이영화, 송춘화 오승희, 연정숙, 문지혜심, 박종대, 손아자, 봉은사합창단 권병아, 금강합창단 정순자, 조계사합창단 임경자, 진각종합창단 김천재, 도선사합창단 김정자, 불광사합창단 김유수, 한미선원합창단 성연, 능인선원합창단 한정자, 국방부원광사합창단 장국향, 관음사합창단 박민자, 대각사합창단 강미자, 수국사합창단 김용옥, 묘각사합창단 윤숙환, 광도사합창단 이순덕, 명법사합창단 전여성, 보리사합창단 이기자, 봉선사합창단 김순연, 본각사합창단 김정숙, 봉원사합창단 박영래, 청룡사합창단 유재균, 보문사합창단 장숙자, 사자암합창단 이은주, 대한불교합창단 최복경, 중앙합창단 정방화, 불교여래원합창단 황성자, 강남포교원합창단 심춘광, 보리정사합창단 김묘주, 성주암합창단 이재자, 용문사합창단 이경희, 영화사합창단 이해중, 약사사합창단 김영숙, 회룡사합창단 명용희, 흥원사합창단 구옥희, 흥륜사합창단 김기철, 성보사포교원합창단 성현숙, 보현정사합창단 유선희(무순)

**불교음악인 장의 위원회**